

정창원의 칠피상자와 제작국 正倉院의 漆皮箱子와 製作國

최재석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1. 머리말
2. 「珍寶帳」의 漆皮箱子
3. 現存 漆皮箱子
4. 漆皮箱子 製作國
5. 맺는말

1. 머리말

정창원(正倉院) 소장 칠공예품(漆工藝品) 가운데 칠피상자를 제외한 일반 공예품에 대하여는 이미 고찰한 바 있으므로¹⁾ 여기서는 칠피상자에 대하여 알아보하고자 한다. 먼저 「헌물장(獻物帳)」(국가진보장(國家珍寶帳))에 기재되어 있는 칠피상자(漆皮箱子)를 살펴본 다음 현존(現存) 칠피상자(漆皮箱子)의 상황을 알아보고 그러한 칠피상자(漆皮箱子)는 어느 나라에서 제작되었는지를 여러 시각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2. 「진보장(珍寶帳)」의 칠피상자(漆皮箱子)

「진보장(珍寶帳)」은 일왕(日王)이 입었던 가사(袈裟)를 넣은 칠피상자(漆皮箱子), 거울을 넣은 칠피상자(漆皮箱子), 잡옥(雜玉)을 넣은 칠피상자(漆皮箱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A. 御袈裟合玖領

九條 刺納樹皮色 袈裟 一領

七條 褐色 紬袈裟 一領

七條 織成 織成樹皮色 袈裟 六領

七條 刺納樹皮色 袈裟 六領

右 納漆皮箱三合 箱別納以碧綾幘袷裏

三領箱亦納 有綠蠟摺袋

1) 催在錫 正倉院의 木·漆工藝品과 그 제작국에 대하여 『韓國學報』 80, 1995.

B. 御鏡貳拾面

- | | |
|--------------------|------------------------|
| 1. 八角鏡一面 重大四十八斤八兩 | 徑二尺一寸七分(中略)緋繩帶 八角楹匣盛 |
| 2. 圓鏡一面 重大四十三斤八兩 | 徑一尺五寸七分(中略)緋繩帶 八角楹匣盛 |
| 3. 八角鏡一面 重大十三斤十五兩 | 徑一尺四寸五分半(中略)緋繩帶 八角楹匣盛 |
| 4. 八角鏡一面 重大四斤十五兩 | 徑一尺四寸七分(中略)緋繩帶 八角楹匣盛 |
| 右(上)納第一櫃 | |
| 5. 圓鏡一面 重大七斤五兩 | 徑一尺二寸九分(中略)緋繩帶 漆皮箱緋稜囀盛 |
| 6. 圓鏡一面 重大六斤一兩 | 徑一尺二寸五分(中略)緋繩帶 漆皮箱緋稜囀盛 |
| 7. 八角鏡一面 重大五斤一兩 | 徑一尺一分(中略)緋繩帶 漆皮箱緋稜囀盛 |
| 8. 八角鏡一面 重大四斤三兩 | 徑一尺(中略)紅羅繡帶 漆皮箱緋稜囀盛 |
| 9. 圓鏡一面 重大三斤十三兩 | 徑九寸二分(中略)緋繩帶 漆皮箱緋稜囀盛 |
| 10. 圓鏡一面 重大三斤八兩 | 徑九寸(中略)緋繩帶 漆皮箱緋稜囀盛 |
| 11. 圓鏡一面 重大三斤十二兩 | 徑九寸一分(中略)緋繩帶 漆皮箱緋稜囀盛 |
| 12. 八角鏡一面 重大四斤二兩 | 徑九寸六分(中略)緋繩帶 漆皮箱緋稜囀盛 |
| 右納第二櫃 | |
| 13. 八角鏡一面 重大三斤四兩 | 徑九寸二分(中略)緋繩帶 漆皮箱緋稜囀盛 |
| 14. 八角鏡一面 重大五斤十三兩 | 徑一尺一寸三分(中略)緋繩帶 漆皮箱緋稜囀盛 |
| 15. 圓鏡一面 重大六斤五兩 | 徑一尺七分(中略)緋繩帶 漆皮箱緋稜囀盛 |
| 16. 八角鏡一面 重大六斤一分 | 徑一尺七分(中略)緋繩帶 漆皮箱緋稜囀盛 |
| 17. 八角鏡一面 重大五斤一兩二分 | 徑一尺一分(中略)緋繩帶 漆皮箱緋稜囀盛 |
| 18. 八角鏡一面 重大五斤一兩二分 | 徑一尺二分(中略)緋繩帶 漆皮箱緋稜囀盛 |
| 19. 圓鏡一面 重大四斤十二兩 | 徑九尺三分(中略)緋繩帶 漆皮箱緋稜囀盛 |
| 20. 圓鏡一面 重大四斤十五兩 | 徑九尺二分(中略)緋繩帶 漆皮箱緋稜囀盛 |
| 漆胡瓶一口 | |
| 右納第三櫃 | |

C. 雜玉雙子六百六十九 水精 35 琥碧 35 黃琉璃 藍色琉璃 20 淺綠琉璃 15
 綠琉璃 15 白碁子 14 黑碁子 15
 納小皮箱

사료(史料) A는 9령(領)의 가사(袈娑)를 삼합(三合)의 칠피상자(漆皮箱子)에 넣은 기록이고 사료(史料) B는 20면(面)의 거울(鏡) 가운데 經 1尺 4寸 이상의 대형(大型) 거울 4면(面)은 4합(合)의 온(삼)상자(楹(杉)箱子)에, 經 일척이촌오분(徑 一尺二寸五分)의 원경(圓鏡)은 칠목갑(漆木匣)에 그리고 나머지 15면(面)의 거울은 15합(合)의 칠피상자(漆皮箱子)에 들어있다는 기록이다. 사료(史料) C는 수정(水精), 호벽(琥碧), 각종 유리(黃(黃), 람(藍), 천록(淺綠), 녹색(綠色)), 백(白)·흑(黑) 기자(碁子) 등은 소피상자(小皮箱子)에 들어있다는 기록이다. 소피상(小皮箱)도 칠피상자(漆皮箱子)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이밖에 제전(題箋), 첩지(貼紙)에도 칠피상자(漆皮箱子)가 보인다.

이밖에 「진보장(珍寶帳)」에는 칠피상자(漆皮箱子)는 아니지만 각종 가죽이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A) 대도(大刀)에 사용된 가죽

「진보장(珍寶帳)」의 대도(大刀)의 손잡이(파(把)), 손잡이에 달린 끈(피현(皮懸), 조현(組懸)), 칼집의 대집(帶執)에는 다음과 같은 각종의 가죽을 사용하고 있다.²⁾

손잡이에 사용된 가죽

교피(鮫皮)

손잡이에 달린 끈에 사용된 가죽

백피(白皮)

세피(洗皮)

자피(紫皮)

칼집의 대집(帶執)에 사용된 가죽

자피(紫皮)

백피(白皮)

세피(洗皮)

흑피(黑皮)

납유피(蠟油皮)

위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정창원(正倉院) 대도(大刀)의 가장자리 부분에는 백피(白皮), 세피(洗皮), 자피(紫皮), 흑피(黑皮), 납유피(蠟油皮) 등 각종 색료(色料)를 물들인 동물가죽과 상어가죽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이러한 가죽은 궁(弓), 전(箭), 갑옷 등에 사용한 가죽과 대체로 일치한다.

(B) 궁(弓)에 사용된 가죽

① 자피전궁파(紫皮纏弓把)

② 세피전궁파(洗皮纏弓把)

③ 적세피전궁파(赤洗皮纏弓把)

④ 적칠자피전궁파(赤漆紫皮纏弓把)

⑤ 황피전궁파(黃皮纏弓把)

⑥ 적칠황피전궁파(赤漆黃皮纏弓把)

⑦ 흑칠점피반세피전궁파(黑漆點皮斑洗皮纏弓把)

⑧ 녹모칠점피반적칠세피전궁파(鹿毛漆點皮斑赤漆洗皮纏弓把)

⑨ 녹모칠점피반세피전궁파(鹿毛漆點皮斑洗皮纏弓把)

⑩ 적칠점피반세피전궁파(赤漆點皮斑洗皮纏弓把)

⑪ 적칠점피반자피전궁파(赤漆點皮斑紫皮纏弓把)

(C) 전(箭)에 사용된 가죽

세피대(洗皮帶)

자피대(紫皮帶)

(D) 갑(甲)에 사용된 가죽

록비피(단갑)(綠緋皮(短甲))

자피록(紫皮綠)

백피록(白皮綠)

조피록(皂皮綠)

세피록(洗皮綠)

2) 崔在錫 日本 正倉院의 大刀와 그 製作國 『韓國學報』, 77, 1994.

- 비피록(緋皮綠)
- (E) 병풍(屏風)에 사용된 가죽
- 자피접선(紫皮接扇)
- 비피접선(緋皮接扇)

위의 제시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가죽은 무구(武具), 즉 활(궁(弓)), 화살을 넣어두는 채(靛), 호록(胡祿), 갑옷과 병풍(屏風) 등에 사용되고 있다.³⁾ 단순한 가죽이 아니라 여기에다 자(紫), 적(赤), 황(黃), 흑(黑), 비(緋), 록(綠) 등의 각종 색채(色彩)를 염색(染色)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3. 현존(現存) 칠피상자(漆皮箱子)

먼저 가사(袈裟)를 넣은 칠피상자(漆皮箱子)의 현존(現存)여부부터 알아보자. 가사(袈裟)를 넣은 칠피상자(漆皮箱子)는 3합(合)으로 9령(領)의 가사(袈裟)가 여기 분납(分納)되어 있었다. 그런데 현재(現在)하는 칠피상자 3합(合) 중 1합(合)은 그 형상(形狀) 및 크기가 다른 2합(合)과 매우 다르고 또한 그 제작기법(製作技法)도 동일하지 않다. 아마 가사(袈裟) 상자(箱子) 3합(合)중 1합(合)은 그 자루와 함께 잃은 것으로 보여진다.⁴⁾

거울(어경(御鏡))을 넣은 칠피상자(漆皮箱子)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래 15합(合)이었는데 현재 현존하는 것은 8합(合)⁵⁾에 불과하다고 한다.⁶⁾

정창원(正倉院)의 경우 현재 가장자리를 부분적으로 칠(漆)을 한 궤(櫃) 종류를 제외한 상자는 흑칠(黑漆)을 한 목재소지(木製素地)의 것이 대소(大小) 33개인데 대하여 칠피상자(漆皮箱子)는 39개나 된다고 한다.⁷⁾

칠피상자(漆皮箱子)의 유품(遺品)은 이밖에 범용사(法隆寺) 전래(傳來)의 것 현재 동경국립박물관(東京國立博物館) 소장의 이른바 범용사헌납보물(法隆寺獻納寶物), 그밖에 2~3종 정도이다.

범용사헌납보물(法隆寺獻納寶物) 중 칠(漆)을 한 상자 가운데 목재소지제(木製素地製)의 것은 없으며 현재 동경(東京) 국립박물관에 있는 가사(袈裟) 상자로 추정되는 상자 6합(合) 중(그 가운데 2합분(合分)은 뚜껑만 있다) 옥대(玉帶) 상자(箱子) 1합(合) 궁내청(宮內廳) 보관(保管)(일왕(日王)의 것) 도자(刀子) 상자(箱子) 1합(合)은 모두 칠피상자(漆皮箱子)이다.

현존 칠피상자(漆皮箱子)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이 거울 상자로 19예(例)이며 이 가운데 「진보장(珍寶帳)」 기재의 것이 7점이나 된다. 가사(袈裟) 상자도 많아 「진보장(珍寶帳)」에 「(御袈裟合玖領)納漆皮箱參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이 그대로 전해져 있으며⁸⁾ 범용사헌물보물(法隆寺獻物寶物)의 8점 중 6점이 가사(袈裟) 상자이다.

이밖에 오사카(大阪) 사천왕사(四天王寺)에 흑칠피제(黑漆皮製)의 가사(袈裟) 상자가

3) 「珍寶帳」에서 本人이 조사 정리한 것이다.

4) 松島順正 獻物帳所載の御物と現在品について, 『書陵部紀要』 7, 1956.

5) 「御鏡」 20면 가운데 #1, #12, #15, #17~#20등의 「御鏡」을 넣은 칠피상자가 없어졌다고 한다.

6) 註 4 참조.

7) 岡田謙, 漆皮箱について, 正倉院事務所, 『正倉院の漆工』, 1975.

8) 현존 칠피상자의 숫자에 대하여는 사람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다. 松島 袈裟를 넣은 상자는 2개, 「御鏡」을 넣은 상자는 8개 현존한다고 한 데 대하여 岡田은 前者는 3개, 後者는 7개라고 주장하고 있다.

있으며, 전산기념관(畠山紀念館)에는 사천왕사(四天王寺) 전래(傳來)라고 전해지는 가사(袈裟) 상자(箱子) 뚜껑이 소장되어 있다. 또, 동경예술대학자료관(東京藝術大學資料館)에도 가사상(袈裟箱)이 있다.⁹⁾ 그리고 칠피상자의 재료는牛皮(牛皮), 늑피(鹿皮), 저피(猪皮)라고 한다.

4. 칠피상자(漆皮箱子)의 제작국(製作國)

앞에서 현존하는 칠피상자(漆皮箱子)의 현황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앞으로는 8세기의 칠피상자는 어느 나라에서 제작되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칠피상자(漆皮箱子)의 제작(製作)이 8세기(世紀) 일본(日本)에 그렇게도 번영하였다면 의당 그것에 대한 노우하우가 일본에 축적되어 있었을 것이고, 그럴 경우 8세기 이후에도 칠피상자 제작은 이어져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평안시대(平安時代)에 들어오면 칠피상자 제작은 행해지지 않게 된다.¹⁰⁾ 이것은 정창원(正倉院)의 칠피상자는 일본(日本)에서 제작되지 않았음을 뜻하는 것이다. 그러나 오카다(岡田讓)는 8세기(정창원(正倉院) 소장품)의 기법이 평안시대(平安時代)에 들어와서 갑자기 쇠퇴(제작되지 않는) 하는 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으나¹¹⁾ 설득력이 없다. 칠피기법(漆皮技法)만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목화(木畵)·발루(撥鑪)의 기법을 위시하여 수많은 정창원(正倉院) 소장품의 기법(技法)이 평안시대(平安時代)에 계승되지 않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① 목제소지(木製素地)의 발달(發達)

② 평안시대(平安時代)는 일본인(日本人) 본래의 감각이 작용하여 더욱 간결한 형태(形態)에 사용욕구(使用欲求)가 기울어졌다.

③ 칠피상자(漆皮箱子)의 불신감(不信感)

칠피상자(漆皮箱子)도 이른바 정창원(正倉院)의 삼채(三彩) 도기(陶器)처럼 양친(兩親)도 없고 조상(祖上)도 없이 돌연히 나타나서 사라진 기형동물과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일본(日本)은 칠피상자(漆皮箱子)는 고사하고 칠피상자의 재료인 가죽 자체를 생산하지 못하였는데 반하여 통일신라(統一新羅)는 각종의 고급 가죽과 가죽제품을 생산하여 국내에서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본(日本)과 중국(中國) 등에 수출하였는데 이러한 현상은 고려시대(高麗時代)까지 지속되었다.

기록에만 의해서도 일본(日本)은 679년부터 752년까지 신라(新羅)의 가죽을 구입하였으며 이에 반하여 통일신라(統一新羅)는 가죽신, 안장 등의 가죽제품을 생산하여 사용함과 동시에 붉은 색 문양을 넣은 매 묶는 가죽, 가죽 갑옷, 가죽으로 포장한 병기(兵器)

9) 註 7 참조.

10) 註 7 참조.

11) 앞의 註 참조.

등을 중국에 수출하였다. 752년에도 일본이 통일신라로부터 가죽으로 장식된 말안장을 구입하였으니 일본은 신라의 가죽으로 만든 제품을 구입하였음을 알 수 있다.

통일신라(統一新羅)를 계승한 고려(高麗)가 1071년 옷칠을 한 상자를 중국에 선물하였으니 통일신라(統一新羅) 때도 훌륭한 칠을 한 상자를 만든 것을 알 수 있다. 지금 이러한 사정을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A) 일본(日本)이 신라(新羅)로부터 구입한 가죽류¹²⁾

- 679년 피(皮)
- 681년 녹피(鹿皮)·피물(皮物)
- 686년 피(皮)·표피(豹皮)·안피(鞍皮)
- 688년 피(皮)
- 752년 간피(干皮)

(B) 신라(新羅)·고려(高麗)가 중국(中國)에 수출한 가죽제품¹³⁾

- 869년 매 묶는 비색(緋色) 가죽 끈
새매 묶는 비색(緋色) 가죽 끈
- 929년 금은(金銀)으로 장식한 매 묶는 가죽
- 945년 금별을 수놓은 가죽갑옷(皮甲)
모직비단에 은별을 수놓은 가죽갑옷
- 1071년 백은을 입혀 검은 가죽(흑피(黑皮))으로 포장한 병기
금은으로 도금하여 흰 가죽(백피(白皮))으로 포장한 병기
은으로 장식한 검은 옷칠을 한 상자(은급장오칠상(銀級裝烏漆箱))
- 1080년 금은으로 도금하여 가죽으로 싼 병기

(C) 신라가 사용한 가죽제품(신발과 마구(馬具))¹⁴⁾

- ① 자피(紫皮) 남자(男子) 가죽신 ⑧ 남자용(男子用) 우마피(牛馬皮) 안장 언치
- ② 우피(牛皮) 남자(男子) 가죽신 ⑨ 남자용(男子用) 가죽 안장 자리(안좌자(鞍坐子))
- ③ 남자(男子) 가죽신 ⑩ 남자용(男子用) 가죽 고삐(인추(靱鞵))
- ④ 여자(女子) 가죽신 ⑪ 여자용(女子用) 호피(虎皮) 안장 언치
- ⑤ 남자용(男子用) 말 안장 깔개(욕자(褥子))
⑫ 여자용(女子用) 호피(虎皮) 안장 자리
- ⑥ 남자용(男子用) 말 안장 가죽 가장자리(연(緣))
⑬ 여자용(女子用) 말 안장 장이(장니(障泥))
- ⑦ 남자용(男子用) 가죽 안장 언치(안천(鞍韉))

(3)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진보장(珍寶帳)」의 대도(大刀), 궁(弓), 전(煎), 갑옷, 병풍(屏風)에는, 자(紫), 적(赤), 황(黃), 흑(黑), 비(緋), 록(綠) 등 각각각색의 색료(色料)로 염색한 가죽을 사용하였다. 법용사(法隆寺) 채회(彩繪) 칠피상자(漆皮箱子)에서 주목

12) 『日本書記』 및 東野治之, 『正倉院文書と木簡の研究』, 1989, p.316, p.346.

13) 崔在錫, 輸出品을 통해 본 統一新羅와 日本의 美術工藝, 『民族文化論叢』 15, 1994.

14) 『三國史記』 卷 33, 色服條에서 본인이 정리하였다.

되는 것은 채회(彩繪)의 장식이다. 바탕의 녹청(綠靑)과 꽃문양의 안료(顔料)를 겨우 남기고 거의 탈락되었지만 뚜껑의 바깥쪽은 녹청(綠靑)으로 채색되어 그곳에 꽃문양이 그려져 있다. 또 뚜껑의 안쪽은 제법 선명하게 채회(彩繪)가 남아있어 단색(丹色) 바탕에 적(赤), 황(黃), 녹(綠), 자(紫) 등의 색채(色彩)를 사용하였다.¹⁵⁾

그런데 일본(日本)은 752년에도 각종의 약 13종(種) 이상의 색료(色料)를 통일신라(統一新羅)로부터 구입한 것을 보면¹⁶⁾ 색료의 시각에서도 당시 일본은 이러한 각종의 색채를 염색한 아름다운 가죽이나 칠피상자를 만들 수 없음을 알게 된다.

(4) 여기서 언급하려고 하는 칠피상자(漆皮箱子)는 거울을 넣기 위해서 만든 상자에 관해서이다. 칠피상자가 처음부터 거울을 넣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면 거울의 제작국(製作國)과 칠피상자의 제작국은 동일국(同一國)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다음의 칠피상자는 각각 처음부터 거울을 넣기 위하여 만든 상자이다.¹⁷⁾

(A) #26 칠피상자(漆皮箱子)(북창(北倉) 42)…… 「헌물장(獻物帳)」의 평나전배팔각경(平螺鈿背八角鏡)(북창(北倉)42-7)의 상자이다.¹⁸⁾

(B) #27 칠피상자(漆皮箱子)(북창(北倉) 42)…… 「헌물장(獻物帳)」의 평나전배팔각경(平螺鈿背八角鏡)(북창(北倉)42-8)의 상자이다.

(C) #28 칠피상자(漆皮箱子)(북창(北倉) 42)…… 「헌물장(獻物帳)」의 평나전배원경(平螺鈿背圓鏡)(북창(北倉)42-9)의 상자이다.

(D) #29 칠피상자(漆皮箱子)(북창(北倉) 42)…… 「헌물장(獻物帳)」의 평나전배원경(平螺鈿背圓鏡)(북창(北倉)42-10)의 상자이다.

(E) #30 칠피상자(漆皮箱子)(북창(北倉) 42)…… 「헌물장(獻物帳)」의 반룡배팔각경(槃龍背八角鏡)(북창(北倉)42-16)의 상자이다.

(F) #42 칠피상자(漆皮箱子)(북창(北倉) 70)…… 황금류리전십이능경(黃金瑠璃鈿十二綾鏡)(남창(南倉)70-6)의 상자이다.

위의 A, B, C, D의 평나전경(平螺鈿鏡)은 한국(韓國)에서 출토(出土)된 동경(銅鏡)과의 비교에서 신라제(新羅製)임이 판명되었으며¹⁹⁾ F의 황금류리전십이능경(黃金瑠璃鈿十二綾鏡)은 안압지(雁鴨地) 출토 전돌 문양과의 비교에서 신라제(新羅製)임이 확인되었다.²⁰⁾ 그리고 E의 반룡배팔각경(槃龍背八角鏡)에는 목이 서로 엉켜 있는 쌍룡(雙龍)의 문양이 새겨져 있는데 이 문양은 신라(新羅)의 금동환두대도(金銅環頭大刀)(호암미술관)의 문양과 거의 일치하므로 이 또한 신라제(新羅製)임이 분명하다.²¹⁾ 거울의 형태나 문양의 시각에서 보아서 그러한 거울이 신라제(新羅製)임이 뚜렷하므로 그것들을 넣은 칠피상자(漆皮箱子)도 신라제임이 틀림없을 것이다.

(5) 끝으로 칠피상자(漆皮箱子)의 문양의 시각에서 그 제작국(製作國)을 알아보고자 한다. 칠피상자(漆皮箱子)는 많은 경우 문양이 없거나 희미하지만 문양이 뚜렷한 칠피상자(漆皮箱子)가 남아있어 여간 다행한 일이 아니다. 그 몇 가지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

15) 註 7 참조.

16) 崔在錫, 史料를 통해 본 正倉院 所藏品の 製作國, 『한국색채학회 논문집』 5, 1995.

17) 註 7의 책 pp.30-31.

18) 상자 앞의 #26, #27 등은 註 7의 책의 개별해설의 번호이다.

19) 崔在錫, 日本 正倉院의 銅鏡과 그 製作國에 대하여--平螺鈿鏡을 중심으로--, 『民族文化研究』 27, 1994.

20) 崔在錫, 日本 正倉院의 瑠璃와 그 製作國, 『日本學誌』 15, 1994.

21) 崔在錫, 日本 正倉院의 金屬工藝品과 그 製作國, (近刊)

자.

(A) 금은평탈피상자(중창)(金銀平脫皮箱子)(中倉)

상자의 가장자리에 연주문(連珠紋) 대(帶)를 돌리고 뚜껑 표면 중앙(中央)에 연주권(連珠圈)을 하고 그 속에 봉황(鳳凰)을 배치하였다. 그 주위에 꽃을 문 6쌍(雙)의 쌍조(雙鳥)는 병행(竝行)정지쌍조(雙鳥) 중 한쪽이 다른 쪽을 보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 상자의 뚜껑과 몸체의 측면에는 꽃가지를 입에 물고 마주보고 비상하는 장미조(長尾鳥) 문양이 그려져 있다.(그림 1) 연주문(連珠紋), 봉황(鳳凰), 병행정지쌍조(雙鳥) 중 한 쪽이 다른 쪽을 보고 있는 쌍조(雙鳥), 마주보고 비상하는 쌍조(雙鳥)는 모두 신라(新羅)의 문양(文樣)이다.²²⁾

(B) 칠피팔각상자(남창)(漆皮八角箱子)(南倉)

거울을 넣는 팔각형(八角形)의 칠피상자(漆皮箱子)이다. 뚜껑 표면의 문양은 연화좌(連花坐) 위에 날개를 펴고 서있는 쌍조(雙鳥)를 그리고 그 주위에 연화(連花) 당초문을 나타내었다.(그림 2) 측면의 외측(外側)은 비상하는 새의 문양을 그렸으며 각 구간(區間)의 가장자리에는 금은(金銀)의 비운문(飛雲紋)과 연주문(連珠紋)을 돌리고 있다. 쌍조(雙鳥), 비상조(飛翔鳥), 비운(飛雲), 연주문(連珠紋)도 신라의 문양이다. 특히 비운(飛雲)문은 신라의 것과 거의 동일하다.²³⁾

5. 맺는말

지금까지 「진보장(珍寶帳)」 기재의 칠피상자(漆皮箱子), 현존(現存) 칠피상자(漆皮箱子)에 대하여 알아본 다음 그러한 상자가 다음과 같은 여러 시각에서 어느 나라에서 제작되었는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 ① 나라시대의 인접시대인 평안시대(平安時代)의 칠피상자(漆皮箱子) 현황(現況)
- ② 당시 일본(日本)이 가죽 내지 칠피(漆皮)를 생산하였는가의 여부
- ③ 통일신라(統一新羅)의 가죽 생산(生産)과 가죽제품 생산(生産)의 현황(現況)
- ④ 당시 일본(日本)은 색료(色料)(안료(顔料), 염료(染料))를 생산할 수 있었는가의 여부
- ⑤ 칠피상자(漆皮箱子)에 들어있던 거울의 제작국(製作國)
- ⑥ 칠피상자(漆皮箱子)의 문양(文樣)

그러나 위와 같은 여러 시각 중에서 어떤 시각에서도 일본은 칠피상자를 제작할 수 없었음을 알게되었고 동시에 어떤 시각에서 살펴보아도 칠피상자(漆皮箱子)는 신라제(新羅製)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22) 崔在錫, 文樣을 통해 본 正倉院 所藏品の 製作國(近刊).

23) 앞의 논문 참조.



그림 1. 金銀平脫皮箱子

[그림] 1 金銀平脫皮箱子(1985年 正倉院展)



동 부분

[그림] 동부분



그림 2. 漆皮八角箱子
(1994년 正倉院展)

[그림] 2 漆皮八角箱子(1994년 正倉院展)